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나...”

李 대통령, 연일 ‘소통’ ‘자성’ 강조 “어려울때 일수록 스스로 변화”

이명박 대통령이 13일과 14일에 이어 사흘 연속 ‘국민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 조찬기도회에 15일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인 제 자신이 모든 것을 먼저 바꿔 나가겠다”며 “제 자신이 바뀌고 청와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멀지 않아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 단절’ 현상이 최고기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직 사회의 안전한 태도를 질타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 대통령 자신부터 되돌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우리도 지금 큰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며 “지난 10년의 그늘이 크고 그 뿌리도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환경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지만 계속 깊으면 산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어떠한 도전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조용기 순복음교회당회장, 이배운 이화여대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 원유가격이 하늘을 모른 채 치솟고 있고 곡물 가격도 끝없이 올라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면서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걱정하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스스로 변화, 체질을 강화해 나간다면 여건이 좋아졌을 때 누구보다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은 일부 계층에는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국민이 멀지 않아 그 성과

와 결실을 곱고루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됐다”면서 “깊이없는 간구와 기도로 이 나라 이 땅이 축복을 넘치게 받는 땅이 되기를 소망하며, 북한 땅에까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기도회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신도 4천여 명이 참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사면초가’ 당·정, 민심 수습 방안 무엇을 담나

정책특보 신설·책임총리제 강화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떨어진 신뢰 하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심 수습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지난 5일 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가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28.5%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지만, 14일 조사에서는 20%대 중반으로 조금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근본적인 국정쇄신책 마련 의견이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국민신뢰 회복방안’을 마련, 16일 열리는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섭 대표가 건의할 ‘국민신뢰 회복방안’에는 권한분산과 정책강

화, 당정청 일체감 형성 등 3가지가 핵심 축을 이룰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민심수습방안에는 최고기 파문에서 컨트론타워로서 기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청와대의 권한과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에 규정된 책임총리제를 강화해 각 부처의 정책 조정기능을 국무총리에 돌려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인터넷 등을 통해 ‘공무원 과당’이 급속히 퍼지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간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기를 당부하는 등도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모든 조정 역할을 떠맡음으로써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통령과 청와대가 곧바로 책임론

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권한분산의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정책특보를 신설해 당·정·청이 사전에 정책 조율을 긴밀히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학법 개정 등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정치적 무리수로 반발을 샀다면, 이명박 정부에는 영어 몰입교육과 같은 의욕만 앞선 정책의 무리수로 민심 이반을 불러 일으켰다는 판단에서다.

정책 강화방안으로는 지난 정권에서 정책실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책특보에는 정부감각을 갖춘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생산할 것으로 한나라당은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북 식량지원 서둘러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15일 북한에 대한 조속하고도 조건없는 식량지원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 지금 식량난으로 굶고 있는 동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인도적 경지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제공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식량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동포가 굶어 죽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 조건을 따지지 말고 동포를 위한 인도적 경지에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상호주의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며 “미국도 식량지원을 사실상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이 요청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조건을 달아서 안된다”고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靑 “여건되면 언제라도 인도적 지원”

청와대는 15일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여건이 되면 언제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계속 갖고 있던 원칙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위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나 미국의 대북 식량원조에 참여하는 방식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스승의 날 모범 교사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선생님들이 변화의 주체로 적극 나설 때 우리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공교육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당장은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변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 걱정과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청와대로 모범 교사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선생님들이 학생

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겠다”며 “새 정부는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문제가 여러가지 있지만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첫째도 인재양성, 둘째도 인재양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영어 몰입교육’ 등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정부 교육정책이) 혹시 (교사들에게) 불편과 불

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모 선생님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서 존중받고, 아이들도 너무 입시에만 매달리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대통령과의 대화’ 시간에는 참석한 교사들이 교육현장의 애로로 토로하며 대책을 건의했다.

전남 진도 지산초교 김영숙 교사는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 해소를, 울산공고의 김일용 교사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마이스터고 설립’에 대해 마이스터고와 대기업간 연계방안 마련을 각각 건의했다. /연합뉴스

2009년 공무원시험 상한 응시연령제한 폐지로 공무원 시험 열풍! 귀하를 광주 "한빛고시학원"에서 합격의 책임지겠습니다.

9급 공무원시험 [지방직] 합격! 최강퍼펙트강좌

www.hanbitgosi.co.kr
들어오시면 전국최고의 시설과 최다합격자 최강의 강사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론반	문제풀이	문제개설	이론 짝수반	서울시 문제풀이	법원 잠적	소방 기출	농업직
2개월 완성	2개월 완성(이론+문제)	2개월 완성	2개월 완성	4주완성	2개월 완성	2개월 완성	농업연구사·농민지도사 영농훈·농·특별전형 특강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www.hanbitgosi.co.kr
www.hanbitgosi.co.kr
www.hanbitgosi.co.kr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 합격률 전국 1위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재상담접수중

- ♣ 현대적 학습시설
- ♣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 ♣ 과학적 평가시스템
-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매월초 합격 (첫진도 시작반)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기위 ● 신배합각지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기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 옆 도영빌딩
▶ 개령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 대합빌딩 옆 청송빌딩 6층

=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성황리 강의중) =

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정직, 세무직, 관공직, 감사직, 법원직, 경찰직, 교정직, 모공직, 소방직, 전직직, 특직직, 특공직, 특공직, 특공직

※ 보건의직 전남23명, 전북16명 9월27일, 경기56명 8월2일, 서울29명 (월강중) ※

금년 중·하반기 시험

5·15일(주)이반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수강 회원모집

6개월(총)회원 80만원
1년(정)회원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 갈(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www.mdgoal.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